

박서보 "21세기는 정신병동...예술은 폭력 아닌 치유여야"

6 January, 2016 | 이향휘 기자



CULTURE

매일경제 50년 미래경제 50년

2016년 1월 6일 수요일 A31

훗 최고 화랑 '화이트큐브'서 개인전 여는 박서보

**“21세기는 정신병동...
예술은 폭력 아닌 치유여야”**



서울 성산동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서보.

〈이승환 기자〉

“조만간 100만달러 작가(한 점당 10억원 넘게 거래되는 작가)가 될 거야.”

허언인 줄 알았다.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만난 단색화 거두 박서보(85)가 확신에 차 '100만달러'라는 숫자를 입 밖에 꺼냈을 때만 해도 피식 웃고 말았다. 당시만 해도 100호가 3억~4억원에 거래되던 때였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까. 지난해 11월 28일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박서보의 1975년 작 연필 묘법은 14억원(수수료 포함)에 팔리며 작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도 모자라 이달 15일부터 영국 최고의 화랑이자 미국 고고시안 갤러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런던 '화이트큐브'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개인전을 연다.

데미언 허스트와 트레이시 에민 등 영국 스타 작가뿐 아니라 전세계 거장들의 작품을 취급하는 세계 최고의 화랑에서 한국 토종 작가 초대전이 열리는 것은 실로 한국 미술계의 쾌거이자 일대 사건이다.

출국 사흘을 앞둔 4일 서울 성산동 작업실에서 한껏 달뜬 노화백을 만났다. “손녀가 지금 로마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화이트큐브에서 전시한다고 하니 방향 뒤편이다. 수업 시간에 교재에서 거론되던 화이트큐브라니 아직도

민기지 않나 봐요.”

사람들도 묻는다. 어떻게 화이트큐브에서 전시를 열게 됐는지. “화이트큐브 디렉터 캐서린이 지난해 5월 베니스비엔날레를 보러 왔다가 단색화 전시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으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스펀데일로 처리돼 한 달간 몰랐다가 뒤늦게 보고 연락을 취했죠. 10월 15일 작품을 고르러 와서 16점을 고르더니 17일 새벽에 갔어요.”

화이트큐브가 주목한 작품은 1967년부터 1981년까지. 연필로 굵기를 반복한 '연필 묘법' 16점이다. 작품이 더 있었다면 더 벽에 걸었을 상황이다. 화업 60년인 그의 작품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연대다. “화랑에서 전 세계 1급 컬렉터에게

팔아준다고 얘기하더군요. 벌써 몇 점은 팔린 눈치예요. 허허.”

세계 미술계 주류에 단숨에 진입한 단색화의 힘은 무엇일까.

“서양의 추상은 비구상입니다. 자연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해 추상화하는 것이죠. 단색화에선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면 '행위의 무목적성과 반복성'입니다. 마치 스님이 하루 종일 목탁을 두드리면서 자기를 비워나가는 행위와 같아요. 여기에

그리는 과정에서 물성이 생기는데, 그 물성과 정신성, 무목적성과 반복성이 혼합돼 합일이 돼야 하는 거죠.” 서양의 미니멀리즘이 이미지를 없애는 개념 작업의 산물이라면 단색화는 정신성이 강조되는 비움의 미학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21세기는 스트레스와 고통, 불안으로 점철된 정신병동 시대죠. 예술이 시각적인 폭력이 아닌 치유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저는 제 그

림이 많은 사람을 치유해주시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1982년 개인전 할 때 100호가 300만원이었는데도 안 팔렸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속칭 '거지'였지요. 그래도 결눈질 안 했고, 부모 탓 안 했어요. 자기가 어떤 신념으로 세상을 사느냐가 문제지.”

길을 잃은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예술가는 머리만 굴려서도, 몸만 굴려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식지 않은 열정이 있어야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보라고 해요. 잡식이라도 상관없죠. 다만 다 읽고 나면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7일 유럽으로 떠나는 그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1998년에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갔을 땐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는데, 작년에 갔더니 '아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이 내가 많이 바뀐 거죠. 미국 기자와 인터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죽기 전에 난 1000만달러 작가가 될 것'이라고. MoMA 회고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올 해도 작년만큼이나 숨 가쁘다. 3월 12일 화이트큐브 전시가 막을 내리면 홍콩 페로렝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이어지고, 4월엔 도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100만달러 작가'가 허언이 아니었듯이, 1000만달러 작가의 꿈도 실현될 날이 올까. 이향휘 기자

**1967~81년 연필묘법 16점 발표
단색화 본 훗화랑측서 적극 추진
“1000만달러 클럽 작가 될 것...”**